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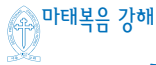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마 21:33-46)

The Wicked Farmers in the Vineyard

(Matt. 21:33-46)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본문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후 몇 년이 지나서 얼마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종들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34절).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43절)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 속의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44절).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그 어떤 것도 이 돌 앞에서는 깨져 가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모든 악한 자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다

본문의 포도원은 작게는 유대교를 의미하지만 좀 더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지극히 적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 종들을 보냈고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돌로 쳐죽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농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함이시며 실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하나님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불쾌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곧 우리의 생명, 자녀, 재산,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때에 정말 신실하게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출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종만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text begins with Jesus' words, "Listen to another parable." Jesus' second parable indicates that a landowner planted a good vineyard,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After a few years, he sent his servants to the tenants to collect his fruit (v. 34). Nevertheless, the wicked farmers beat one, killed another, and stoned a third. Lastly, Even though the landowner sent his son, the tenants killed him too. After finishing the parable, Jesus asked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Therefore, w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comes, what will he do to those tenants?" And He continued to say as follows: "Therefore, I tell you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who will produce its fruit" (v. 43).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parable means the vineyard. And then, the kingdom of heaven that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regarded as exclusive possession would be deprived and received to a people who would produce its righteous fruit.

"He who falls on this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v. 44).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is word based on the book of Daniel 2, Jesus is the corner stone which can rub anything until it breaks or until it crumbles into dust. Consequently, this means that all wicked people will be destroyed by Jesus Christ who is the cornerstone.

1. It is God who is very generous

The text indicates that the vineyard refers to Jewish religion in a small sense, Israel in a large sense, and the wonderful world that God gives us in the largest sense.

After time fully passed, the landowner sent his servants to the tenants to collect a little fruit. But the wicked farmers insulted the landowner's servants and stoned them to death. However, the landowner sent his son to let them have a chance to confess. It is just the Father our God whom we believe in and who is very generous. And we can really know that it is God who stands for l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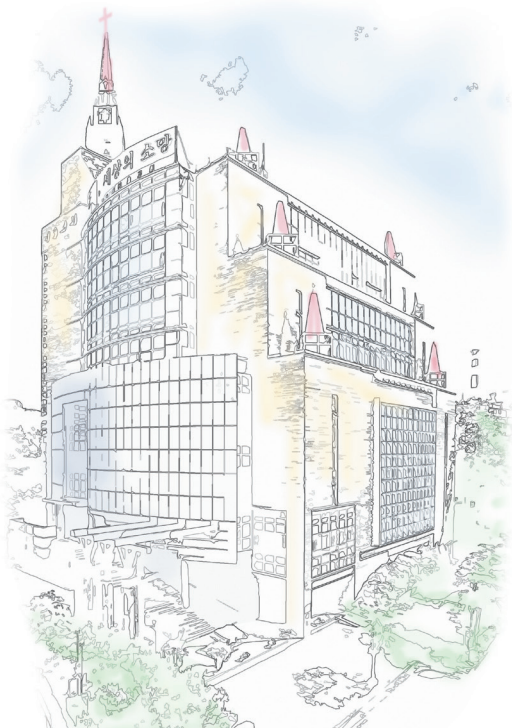
2. Men are wicked and egoistic human beings

There is nothing that we do that deserves a gift from God. Nevertheless, if we do not accept God's request, we can even feel unpleasant. Whatever we possess, in other words, our life, children, property, and health are not ours but belong to God. At the time when you do not get something from Jesus but give him something, Do you really recognize that all of your possession belong to Jesus and are you going forward to the losing situation and sacrificing situation?

My beloved Christians,

The fact that we obey when blessed words are not only transmitted but also the crops of life are requested shows that we greet Jesus Christ, son of God whom we must serve well.

Jesus says that the kingdom of God will receive the people who bear fruit by giving gladly to Jesus Christ as the people of bearing abundant fruit.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a blessed people enjoying the abundant grace and blessing as much as you plea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7학기 서울성경대학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3월 2일(월)~5월 10일(주) /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 2일(주) ~ 5월 10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요한복음	목, 저녁 7:00~8:00	유문건 목사	602호
	갈라디아서	금, 오전 6:10~7:00	박영준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조원영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3/1~5/3)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3/15~4/12)	서준권 목사	609호
이·미용학교	월, 오전 10:00~12:00 (3/2~5/4)	배경애전도사	701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2/22~6/14)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3/3~4/28)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부	화, 오후 1:30~3:30 (3/3~4/21)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3/5~5/7)	구본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3/7~5/9)	양세라 목사	702호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청년1·2부, 2월 12일(목)~14일(토) / 아가페타운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청년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6:10)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청년2부				
사랑부	2.8(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양춘경,이인숙 1 서명철 0.5 이우진,김일순 1 안혜경 0.5 윤운 1 김복녀 0.5 오정수,이영희 1 양종숙 0.5 전시경 0.5 강석조 0.5 (다음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박노철,김은경(1) 서명철(0.5) 이우진,김일순(1) 양춘경,이인숙(1) 홍성혜,이성우(1) 박정수(1) 송동선(0.5) 한명자,박우승(0.5) 박영실(0.5) 황현숙,이근홍(0.5) 이종욱,이재경(1) 윤정일,이승언(0.5) 김복녀(0.5) 최성을,박진희(1) 김희진(0.5) 김보경(1) 오정수,이영희(1) 최영란(0.5) 김유신(1) 김희열(1) 최금봉(0.5) 박동우,백승경(1) 전성희(0.5) 윤미란(1) 정기자(1) 원명희(1) 전광영(1) 양현주(1) 김금준(1) 마리아여전도회(1) (다음주 계속)

비전2020 후원자

박노철,김은경(10) 우현주(1) 이우진,김일순(2) 양춘경,이인숙(2) 박영실(1) 김연옥(1) 이근홍,황현숙(1) 이성우(1) 김복녀(1) 김규태,박미혜(2) 고석태,장효정(1) 차동길(3) 손명근(1) 광숙(1) 지성철(3) 장명순(2) 오정수,이영희(5) 송인수(2) 김관홍(1) 정수진(5) 김광룡,이정임(2) 서명철(1) 최순례(1) 김수호(1) 임종태(1) 이경희(3) 김영식,조정식(1) 신삼철(1) 이영옥(1) 배옥선(1) 원명희(1) 이은미(1) 이기택(1) 양현주(5) 김경자(1) 이덕진(2) 김경희(10) 백도환(2) 홍승권,황정인(2) 김금준(1) 마리아여전도회(2) (다음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9)

(문 159) “요나가 밤 낮 사흘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 낮 사흘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12 :40)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믿고 있는 대로 금요일 오전9시에 못 박히고 오후3시에 운명하셨다면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삼일삼야(三日三夜)를 무덤에 계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답) 눅23:54에 의하면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주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일삼야가 아니라 이틀 밤 하루 낮이 될 것입니다. 삼일삼야를 충족시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목요일이나 수요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설을 받을 경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일이 주일이 아닌 토요일(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목요일 설을 받을 경우 주님의 최후 만찬을 수요일 밤에 잡수신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됩니다. 더욱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유월절 잔치 이전의 사건처럼 보여 준 요18:28과 19:14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유월절 기간 동안의 잔치를 후자는 유월절 예비일 즉 금요일을 말씀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삼일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야삼일(二夜三日)입니다. 목요일설(三夜二日)이나 수요일설(四夜三日)도 삼일삼야를 충족시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오후3시에 운명하셨다면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해서 삼일이 되는 주일 오후 3시에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었다’(고전15:3) 라고 선언한 사도의 말이 온전한 삼일삼야라면 주님은 네 번째 날이 시작되는 때에 부활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하신 주님은 ‘요나가 밤 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 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12:40)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24시간 전체를 하루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날도 하루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3시에 운명하셨지만 유대인들의 날계수법에 의하면 당일 오후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고 해 지는 시간을 기준 하여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둘째 날로 보고 그 때부터 주일 새벽 부활하신 때까지를 셋째 날로 계산하면 삼일이라는 말은 부분적이지만 확실해 집니다. 자정(밤12시)부터 다음 자정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로마인들의 방법대로 계산해도 삼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삼야(三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하30:12에 ‘낮 사흘 밤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애굽 소년은 13절에서 ‘사흘 전에’ 주인의 버림을 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 정확한 전(全)삼일이 아니지만 삼일이라 하고 오순절도 실제로는 7주일 즉, 49일 입에도 50일(오순절)이라 부르듯이 삼야(三夜)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일을 강조하기 위한 대칭용법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부활절기 시 공모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순절 묵상시, 종려주일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3일,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015 노약자 심방

사랑하고 보고 싶은 서울교회여!



지난 1월 12일(월) 5교구 임춘자 권사님(77세)을 시작으로 하여 2월 5일(목) 12교구 김춘기 성도님(93세)을 마지막으로 심방함으로써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70세 이상 되신 분으로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신 스물 두 분의 노약자 심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1월 23일(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11교구 김선미 권사님(89세)을 심방하기 위하여 출발하기 전에 심방대원이 “권사님께서 치매가 심해서서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담임목사님께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스럽게 귀뜸을 해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교구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리 김 권사님은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동행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잘 알아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안부를 전하시자 김 권사님은 원로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며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7-21절 말씀으로 증거를 하셨을 때, 권사님은 “아멘”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시고 권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드렸

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은 김 권사님에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은 서울교회를 위해서,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크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교구 김현주 권사님(87세)께서 입원해 계시는 춘천에 있는 요양병원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김 권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치매로 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와 원로목사님을 기억하시고 2010년 1월에 심방하신 이래 금년에 여섯 번째 심방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알아보셨으나 금년에는 김 권사님께서 가장 애창하시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도 따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과 히브리서 11장 36-40절과 4장 12절 등 여러 말씀을 증거하셨으나 안타깝게도 권사님은 분명하게 반응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간절하게 드린 후 그곳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서울교회를 아시느냐고 물었을 때 권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천국의 소망이 이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명철 목사(편집부)



편지왔어요 - 동계비전팀

남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박권준 집사 (1교구)

저희 비전 트립팀은 교회의 큰 관심과 기도속에 2일 교회를 출발하여 무사히 선교지 미얀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양곤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Thaketa교회에 도착, 리안감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성도들의 장미꽃 환영을 받고 약 20명의 유치부 아이들과 20명 정도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문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시며 앞으로 주일성수하며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미얀마의 큰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해 간 여러 프로그램(인형극, 미얀마어 찬양과 율동, 나사로 이야기, 구슬 꿰기, 풍선 터뜨리기 등)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약 20명의 중학생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번째 설교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하며 특별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 유문건 목사님께서 축복기도하시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얀마어 성경 500권을 구입했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오늘 사역에 대한 각자의 소감 등을 얘기하고 첫날의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도 죽은 미얀마 영혼을 깨우러



가자는 내용의 경건회를 마치고 양곤 시내 동쪽에 위치한 South Dagon교회에 오후1시반에 도착하여 탄다르카인우 목사님과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미얀마어 성경, 어린이들 선물과 약을 전달한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40명과 어른15명을 대상으로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교회는 목사님이었던 남편이 3년전 돌아가신 후 아내인 지금의 목사님이 지진아인 첫 딸을 포함한 4자녀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교에 갈 예정이어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도 미얀마 퇴역군인들의 선교회를 방문하여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굳기」찬양과 미얀마어 찬양을 한 후 North Dagon 교회에 도착하여 유문건목사님께서 서울교회의 사랑을 전하신 후 축복기도해 주실 때 어린 학생들이 큰소리로 아멘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활동 중 최차순 장로님께서 약 50명의 동네 어린이들을 더 불러 모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출발하여 집을 잃어버리고, 현지버스가 늦게 온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셨고, 팀원들을 잘 챙겨주시는 김순영 권사님, 맛있는 저녁을 베풀어 주신 김태욱 권사님, 어린이 선교단원인 강주는 학생과 장해운 학생도 사역준비도 잘하고 찬양과 율동, 그리고 사탕 나누어주는 아주 작은 사역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갈 때까지 성령하나님께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



김예나 성도
(청년1부 다윗 공동체 회장)

청년1부 다윗공동체에 수련회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청년 1부와 2부가 연합하여 진행하며, 서준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특강과 찬양, 뜨거운 기도회로 이루어진 은혜 가득한 프로그램과, 교제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조모임, 공동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청년 모두가 하나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세대로써 세운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친구들과는 구분된 대학생활을 하고, 취업과 직장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 확신과 강한 믿음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청년의 때, 최대한 빨리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깨달아 그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시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울교회 청년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원근 성도
(청년1부 요한 공동체 회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제로 청년 1,2 부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가페 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꼼꼼하게 수련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준비할 것들도 많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요한 다윗 바나바 세 부서의 임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합심으로 준비하여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청년 1, 2부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청년이 수련회의 자리에서 하나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청년 1,2부 다락방별 모임을 통해 청년 1, 2부의 거리감을 좁히며 더욱더 하나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번 수련회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든 서울교회 청년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수련회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청년 1부, 2부에 참여하시는 지체들 뿐 아니라 주일에 예배만 드리시는 우리교회 모든 청년 모두를 수련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성우 성도
(청년2부 회장)

몇 해 전 수련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각자 기도를 하던 지체들이 하나둘씩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있었던 반면에 잘 몰랐지만 선뜻 꺼내기 힘든 기도제목을 꺼내줘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 할 때 부어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길 바라는 따뜻한 역사로 인해 저 역시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주셨던 너무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번 수련회에서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 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나아오는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길 크신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부름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월 9일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출국하시는 담임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2. 2월 2일 부터 12일까지 파송 된 미얀마 동계 비전 트립팀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8일)와 청년1, 2부 겨울 수련회(12일~14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4. 제 37학기 서울 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숙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동 정

- 박노철 목사는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9일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여 15일 토론토 소말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20일 귀국한다.
- 득녀(쌍둥이) : 김혜옥성도 조진영성도(12교구)
- 주일식당봉사 : 에스더전도회(2.8) 마리아전도회(2.15)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B.M.W.운동
동참합니다



Bus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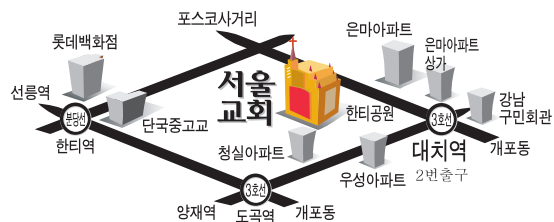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Walking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